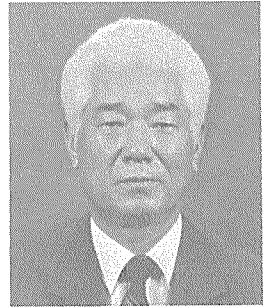


현장 중시 경영을 할 때



이기룡 / 본회 비상근 이사
고려전기(주) 사장

지난 1~2년간의 국제정세 변화로는 향후의 국제경제환경은 표면적인 자유무역 표방아래 실제로는 자국경제보호라는 보호무역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렇다고하여 우리도 빗장을 걸어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증대정책만을 추구할 수 없다고 볼 때 “적자생존”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작은 시장인 우리나라가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품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지속하여 줄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저해하는 환경요소는 많다. 고금리, 담보대출, 노동력이완, 기능 및 기술인력 부족, 수요감소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평소 생각으로는 “현장중시 경영체제”의 확립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익의 원천은 생산현장과 영업현장에 있다고 하겠다. 경영자 및 간부가 현장관리를 소홀히 하고서 이익의 극대화를 기대한다면 이것 이상의 모순은 없을 것이다. 사실 경영저해 요소들은 오직 평소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익창출의 원천인 현장관리에 기업력을 집중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영자, 간부는 항상 현장 상황에 투철해야 하며 업무, 물자의 흐름상태에 대한 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실무진을 끊임없이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

게 필요한 것은 첨단기술, 신기술 개발에 앞서 현장의 응용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업시책 구현에 경영의 중심을 두어 안정성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현장의 응용기술 향상 없이는 신기술의 상품화는 결코 불가능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공업진흥청이 “품질경영”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늦은감이 없지도 않으나 향후 기업경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펍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그간 타인자본에 의존한 외형키우기에 급급했던 우리기업들은 그 기초부터 재점검하고 재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품질경영은 바로 현장경영의 충실이라 할 수 있겠다. 분임조, 제한활동이 곧 현장기술을 향상시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발전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시장개방 조치로 인해 외국의 대형부품사들의 국내진출을 간파해서는 안되겠다. 대부분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전자대기업을 상대로 저가판매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의 경쟁력강화 노력도 지속되어야겠

지만 대기업을 대응자세도 중요하다. 부품산업을 남에게 넘겨주고 기술중속국으로 전락하고 말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대기업의 발전은 소재 및 부품산업의 육성이 전제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영세한 많은 국내부품기업들이 믿고 땀흘리는, 또 투자를 증대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은 정부 및 대기업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해야겠다.

요즈음 잡식가들의 마구잡이 식성탓에 뱀, 개구리 등이 멸종위기에 놓여 자연환경 파괴가 심각하다고 한다. 소수의 행위였으나 우선 나 또는 우리회사의 배부터 불리고자하는 이기적인 사상이 치료되지 않고는 내일의 훌륭한 기업장래를 기약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차제에 소재, 부품업체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우리 경영인부터 스스로의 경영의식혁명을 출발점으로 생산체제 및 서비스 체제의 확립에 기업력을 총결집해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도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93년은 전자공업인 모두가 튼튼한 기업기반을 구축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